

지역 소식통

서울시의회 의원 정읍 방문 교류 확대 방안 등 모색

서울시의회 양준욱의장을 비롯한 의원 40여명이 지난 30일 1박2일 일정으로 정읍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정읍 출신의 최영수, 오봉수, 김동욱, 이현찬, 이순진, 김진철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은 정읍시 단풍미인여성축구단과 친선 축구 경기를 가지며 우의를 다지고 내장산비프소트 조성 현장을 견학하고 간담회도 가지며 양 도시 간 우호를 다졌다.

김시장은 간담회에서 "양 시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 한 이후 직거래장터 운영과 농촌유학 체험 그리고 귀농귀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활발한 교류를 추진해 오고 있다"며 "그간의 교류 성과를 언급했다.

이어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양 시간 교류를 확대하고 우의를 증진, 상생 발전을 꾀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읍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민선6기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류를 가지며 상생 발전을 꾀해오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지원 오늘부터 신청·접수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3분기 융자 지원 대상자를 오늘부터 신청·접수받는다.

이번 운전자금 융자신청은 고창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적격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융자대상자로 선정된다.

융자 한도는 사업장당 3,000만원, 융자 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 4%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2분기까지 2회에 걸쳐 35명에 대하여 소상공인 운전자금 9억6,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했으며, 이차보전금 7천800만원을 지원했다.

군은 지난 2010년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물가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부터 전 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보증을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다.

민선 6기 박우정 군수의 공약사업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총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489명에게 100여억원의 융자지원 및 8억5,000만원을 이차보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빵비빔밥·팽정식

메뉴 개발 최종 평가회 열려

희망업체 6개소

대표·평가단 30명 참석

청정 해풍을 머금고 자란 부안빵비빔밥 팽정식 메뉴 개발 평가회가 지난 29일 번 산면에 위치한 해변촌달아리공에서 팽정식 보급 희망업체 6개소 대표와 평가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평가회는 6차 산업 수익모델 사업의 성과로 개발된 빵있을 활용한 부안 빵 즉석비빔밥 레시피를 소비자 판매를 희망하는 의식업체에 적용하여 부안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를 중심으로 부안빵비빔밥과 팽정식을 개발하여 그 모습을 선보였다.

부안빵비빔밥과 팽정식의 본격적 판매를 희망한 의식업체는 부안읍에 위치한 아리울한우명품관, 학당마루, 당산비루, 수라 청과 내 소사 입구 전주식당, 변산의 해변촌달아리공으로 전주대학교 민계홍교수의 순회 컨설팅과 참가자의 열정적인 토론을 통해 빵비빔밥 반찬과 후식에 이르기까지 공통 레시피를 정하여 어느 식당을 가도 동일한 가격과 고급스러운 맛의



빵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평가회에 참가한 평가단은 부안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식 재료에 한번 감탄하고 맛깔스럽고 고급스러운 음식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가족, 지인들에게도 오늘 느낀 부안의 맛과 맛, 감동을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안빵비빔밥과 부안팽정식은 많은 군민들과 의식업체들의 관심 속에 개발되어 본격적으로 선보이게 되었고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부안을

대표하는 이색 건강 먹거리로, 양질의 가에는 정정 전 빵있을 채취 음식점에 공급하여 새 소득원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 전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며, 고창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해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군수는 또 유선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문화관광분야 예산확보와 현안해결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합찬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박우정 고창군수, 국비확보 '총력'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신청 예산반영 '앞장'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역현안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군수는 지난 29일 국회를 방문해 백재현 예결위원장, 안호영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함께 해결에 힘쓰기로 했다.

고창군은 1193km에 이르는 상수도 관망을 진단한 결과 100km 이상이 노후돼 이를 교체하고 최적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고 예산보증을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박 군수는 기후변화 등으로 해가 갈수록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지방상수도 관로의 누수 현상이 심각해 물 부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확대를 건의했다.

백재현 위원장은 물 관리의 효율성의 증대와 관련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공감하고 추경 등 일부 확대 논의가 있었음을 밝혀 예산확보 전망에 희망을 줬다. 이어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을 만

나 소관 현안인 고창지구 도시 침수 예방사업, 국도 2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국회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호영 의원은 국도 2호선의 4차선 미 확장 구간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며, 고창지구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해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군수는 또 유선영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문화관광분야 예산확보와 현안해결에 협조를 당부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합찬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원전 방사능 누출 대비 방호장비 지급

고창군이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비 지역주민에게 방사능 개인방호물품을 지급한다.

지난 30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변경 10km에서 30km로 확대됨에 따라 전북도와 한국수

력원자력의 지원을 받아 주민에게 방사능 개인방호물품 1만2400세트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방호물품은 방사능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과 보호장갑, 보호안경, 특급 마스크, 신발덮개 등이다.

군은 올해 말까지 1만7500세트를 14읍면에 비치하고 2019년까지 전 주민에게 100%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집결지 및 광역구호소 인내관 제작, 방사능방재장비 점검, 홍보물 제작, 방사능방재주인 행동요령 제작, 방사능방재 주민 및 교육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상반기 정년퇴직 기념식 개최

고창군이 2017년 상반기 정년퇴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우정 군수, 이길수 부군수, 실과소장과 정든 공직을 마감하는 퇴직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우정 군수는 정년퇴직을 맞은 손병수 지방기술서기관 등 10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이현감 전 생물권보전사업소장 등 6명에게 33년 이상 국가와 지역사회에 발전에 이바지한 노고를 녹조근정훈장과 육조근정훈장, 근정포장, 국무추진, 장관 표창패 전수

를 통해 치하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고창군이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었던 것은 퇴직 공무원 여러분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봉사해 준 덕분"이라며 "정든 공직을 떠나지만 후배 공무원을 비롯해 군민들은 여러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고 앞으로도 고창군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길 기대하며 제2의 인생을 더욱 멋지게 펼쳐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농어촌민박사업주 서비스 안전교육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부안군이 피서객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주를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서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8일 위도면과 29일 부안청소년수련원에서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농어촌민박사업주 28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안전교육을 가졌다.

이 자리에 김중규 부안군수는 특강을 통해 "관광객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부안군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기억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은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 친절서비스

마인드 향상, 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등 사례 위주로 교육이 이뤄졌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어촌민박 개정에 따라 민박사업주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번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사업자는 10월경에 추가로 운영하는 교육에 참석하면 이수할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민박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방문객 만족도 제고는 물론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대상 확대시행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보조금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농협은행과 BC카드간 제휴협약을 체결해 기존 단체만 발급 가능했던 고창군 보조금 전용카드를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으로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전했다.

앞으로 고창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때는 고창군 보조금 전용카드

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고창군 보조금 사용 시 이용액의 0.5%를 기금으로 적립,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자부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지난해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 적립액은 1200만원으로 올해는 사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고창군 수입이 훨씬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김영식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a cartoon bear mascot, and various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부안강산명주 GIFT SET',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명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The ad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